

국내 라키비움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lans for Facilitating the Management of Larchiveums

유 소 연 (Soyeon Yu)**

김 지 현 (Jihyun Kim)***

초 록

최근 해외에서는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이 합쳐진 미래형 기관 유형으로 LAM, GLAM, 미디어테크 등으로 지칭되는 통합형 기관들이 설립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영문명을 합성한 라키비움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라키비움을 살펴보고, 국내 라키비움에 재직 중인 사서,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그리고 라키비움을 이용하고 SNS에 방문 후기를 남긴 이용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라키비움의 인식 정도와 이용 목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라키비움 운영 활성화 방안을 기관 내·외부 인식개선, 공간 개선과 서비스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라키비움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통합적 운영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ABSTRACT

Such future-oriented institutions that put together the functions of a library, archive, and museum are being actively introduced overseas recently and are called LAM, GLAM, and media tech. In South Korea, the term larchiveum, combining library, archive, and museum, is widely used.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a case study followed to determine larchiveums in service both home and abroad. The researcher then conducted an interview with librarians, archivists, and curators working for the larchiveums selected as the South Korean cases for the stud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 larchiveum. Addition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users that visited a larchiveum in the nation and uploaded posts on a social media platform to understand their perceptions of a larchiveum and problems with the purpose, functions, and services of i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udy proposes vitalization plans for the management of a larchiveum in three aspects: improv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awareness, securing budgets and manpower for space enhancement and service, and reinforcing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a larchiveum via a devoted organization.

키워드: 라키비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운영

Larchiveum, Library, Archive, Museum, Management

* 이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22.06)을 축약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skswlrndl@naver.com)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im.jh@ewha.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2년 8월 17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8월 17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9월 1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205-237,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3.205>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서관·기록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들 기관의 특성과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이시카와 데쓰야, 네모토 아키라, 요시미 순야, 2021).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여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이 협력하거나 통합되어 서비스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각 기관의 자원 및 서비스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미연, 2016). 특히 국내 지방 기록관의 열악한 시설 상황과 박물관의 콘텐츠 확충을 위한 고민, 그리고 도서관 기능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세 기관을 통합한 복합문화공간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한희정 외(2014)는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효율적인 교육 분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해외에서는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과 서비스가 통합된 기관을 각 기관의 알파벳 첫 글자를 합성한 LAM으로 주로 지칭하며, 기관의 순서를 변경하여 MLA나 ALM, 미술관(galleries)을 포함한 GLAM, 혹은 미디어테크로 표현하기도 한다(이시카와 데쓰야, 네모토 아키라, 요시미 순야, 2021; Rasmussen, 2019).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영문명을 합성한 라키비움(larchiveum)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라키비움은 미국 텍사스대학교의 교수였던 메건 윈젯(Megan Winget)이 온라인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유형

의 디지털 자원을 보존하는 데 있어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아우르는 수집 기관으로 제안한 개념이다(Kuzyk, 2008). 이를 바탕으로 라키비움은 도서관·기록관·박물관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이용자 요구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는 설비와 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정의되고 있다. 새로운 문화정보센터로서 라키비움은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공유하면서 제한 없는 정보의 검색과 이용 및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제시되기도 한다(이미경, 2014; 조현양 외, 2015).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통합과 협력을 통해 이용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술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Duff et al., 2013).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이 합쳐진 미래형 기관으로서 라키비움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같은 공간에 이들 기관을 물리적으로 위치시키는 것만으로는 라키비움 운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각 기관이 가진 인력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때 이 세 기관의 융·복합 또는 통합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시카와 데쓰야, 네모토 아키라, 요시미 순야, 2021). 더불어 도서관·기록관·박물관 통합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모범이 되는 라키비움 사례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제시되고 있다(Rasmussen & Hjørland, 2021).

변화하는 이용자 요구와 정보기술 환경에서 도서관, 기록관 및 박물관을 중심으로 외부기

관과의 협력과 연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라키비움의 설립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몇몇 기관의 라키비움 설립에 대한 보도자료나 사례보고는 존재하지만 이들 라키비움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라키비움의 의미와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방식 및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라키비움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라키비움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선행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 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문화유산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연구로 김민경과 이성신(2014)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업무, 공간 기능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협력모형을 제시하였다. Marcum(2014)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세계의 문화유산에 접근·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효용을 높이 평가하였다. Howard et al.(2016)은 호주의 미술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GLAM)의 예비 정보 전문가들의 교육 요구를 조사하여 기술과 지식에 대한 정보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Kennan와 Lymn(2019)는 미술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GLAM)에서 근무할 전문적으로 훈련된 직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연구는 고용인의 입장에서 GLAM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의 범위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라키비움 구축에 대한 연구로서 김유승(2012)은 국회 소속기관 중 문화유산기관인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의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하고 전망을 모색하였다.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 연구로 김미연(2016)은 인천지역 공공도서관의 라키비움 유사서비스 구현현황을 분석하여 인천지역 공공도서관에 근무 중인 사서를 대상으로 라키비움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라키비움 설립의 필요성과 사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 연구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척되지 않았다.

1.3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이 소장한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와 복합문화공간을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구축되고 있는 라키비움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사례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라키비움의 정의와 특징을 조사하였다. 라키비움을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이 합쳐진 기관으로서 각 기관이 가진 인력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보고 그 의의와 기능 및 유형, 구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사례연구를 위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라키비움을 파악하고, 각 기관의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조사 기관 선정은 최근 20년간 보도된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협력 또는 라키비움 홍보 기사와 방문객들이 게시한 SNS 방문 후기 등을 수집하여 라키비움을 표방하고 있는 기관을 분석하였다. 국내 라키비움 중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전문직렬 1명 이상 채용, 라키비움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2건 이상, 기관 SNS를 통한 라키비움 홍보 2건 이상인 기관 10개를 선정하였다. 국외의 경우 라키비움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논문 및 연구 보고서 등에서 소개한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였고, 구글 등 검색 엔진을 통해 파악된 사례 중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의 5개 기관을 선정 및 분석하였다. 국내외 라키비움 조사대상의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설립 연혁 및 조직 구성원을 포함한 일반적 사항, 기관 및 공간적 특성, 주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라키비움에 재직 중인 사서, 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 라키비움을 이용하고 최근 3년 이내 SNS에 방문 후기를 남긴 이용자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무자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라키비움의 의미와 기능, 서비스,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로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을 발견하고 코드를 부여하여 범주화하는 개방 코딩을 수행하고 연구자들 간 검토를 통해 코딩 체계를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무자와 이용자 인터뷰, 기관 홈페이지

내용 분석 및 기관 방문을 통한 관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라키비움과 관련된 다양한 정성적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라키비움 운영 현황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라키비움의 정의와 특징

2.1 개념

라키비움은 2008년 메건 윈젯이 처음 제시한 용어로써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역할을 하나의 기관 안에 통합하여 다양한 매체의 정보 및 기록물을 수집 및 관리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기능을 집약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과 운영의 비용 절감 및 이용접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영실, 2013).

메건 윈젯이 제시한 ‘라키비움’이란 용어의 주요 개념은 첫째,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서비스 통합이다. 이는 디지털 정보의 확산 및 자료의 다양화에 따라 기관 유형에 의해 구별되는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공간 및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에게 제공기관의 구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새롭고 다양한 정보자원을 수용하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자료의 증가에서 오는 현상으로 도서관·기록관·박물관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소장자료 및 서비스의 경계가 점차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복합공간이다. 라키비움의 설계에 있어 다양한 매체에 수록된 정보자원을 이용자 요구에 맞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환경과 물리적인 시설 및 설비와 함께 전시 및 열람, 토론 및 정보서비스를 위한 공간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라키비움은 다양한 매체와 유형을 가진 정보자원을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과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현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둘러싼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한 온라인 서비스의 필요성과 함께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설 등을 갖춘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합문화공간을 통하여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조현양 외, 2015).

그러나 같은 공간에 이들 기관을 물리적으로 위치시키는 것만으로는 라키비움 운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세 기관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라키비움의 개념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운영 중인 라키비움은 과도기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현재의 라키비움이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협력형 기관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인력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예산 확충과 인력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세 기관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이상적인 라키비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라키비움을 정의하였다.

2.2 기능과 유형

라키비움에서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각각의 기능을 자관의 특성 및 상황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라키비움 기능 계획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관의 기능을 잘 어우르며 통합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기관의 핵심 업무는 크게 변동이 없도록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고유 업무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조직 구조 등의 환경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김미연, 2016).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서비스 기능은 첫째, 정보자원을 활용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연구와 창작을 도모하는 '지식정보 진흥 기능', 둘째, 다양하고 세분화된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소속기관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체험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문화적 이용확장 서비스 기능'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최영실, 이해영, 2012).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이 수행해 온 이용자 서비스의 기능은 라키비움의 서비스 기능을 계획할 때 각 영역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세 기관의 기능을 융합한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사례나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 사례가 더 많은 실정이다(김미연, 2016).

‘도서관·기록관·박물관’ 융합의 사례인 미국 대통령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으로 명명되었으나 중심 기능은 대통령 집무 자료인 공문서를 보존·관리하는 기록관이며, 대통령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박물관 기능도 제공한다(이시카와 데쓰야, 네모토 아키라, 요시미 순야, 2021). 캐나다의 LAC는 ‘도서관·기록관’의 융합의 사례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기록과 더불어 민간 기록도 함께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에는 문서뿐만 아니라 시청각 기록과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도서관·박물관’의 융합은 도서관의 자료 수집과 박물관의 유물 전시 및 교육서비스를 통합한 유형으로 미국 카네기자연사박물관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기관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자료 및 실물자료를 통해 다각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김미연, 2016).

2.3 구성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공통점은 기획 단계에서 설립 취지를 문서화하는 작업이며, 여기에는 기관의 존재 이유, 목적, 역할 그리고 기능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은 이후 계획되어야 할 단계와 운영 내용을 결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윤선영, 2016). 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종합한 라키비움의 목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살펴보면, 1) 학문 및 문화발전, 2) 인류문화의 평가, 보존 및 관리, 3) 문화적 향유 및 즐거움, 4) 지식정보제공 및 평생교육의 교육적 목적, 5) 지역사회 발전 및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사회적 역할이다.

세 기관의 소장자료는 수집 대상 및 분류가 상이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세 기관의 공통 기능인 보존과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라키비움의 소장자료 특성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윤선영(2016)은 1)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자료, 2) 도서·문서·시청각·실물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 3) 전시·개방형 수장고에 활용 가능한 자료, 4) 대출·열람·교육·순회에 활용 가능한 대체적 자료, 5) 장애인·특수 이용 대상에 활용 가능한 특수 및 기타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세 기관의 전문 인력은 소장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수집하는 자료의 종류가 다르고 기관에 따라 수집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인력을 라키비움 업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할지 고려해야 한다. 라키비움에서는 사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학예사의 역할을 비교하여 세 기관 전문인력의 공통 업무를 재구성할 경우 라키비움의 부서를 크게 ‘수집·보존·관리’와 ‘이용·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집·관리·보존 부서는 수집, 평가, 분류, 기술, 보존처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용·활용 부서는 대출·반납, 문화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이용자 서비스와 교육 및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윤선영, 2016).

도서관·기록관·박물관에는 다양한 공간이 존재하며 도서관에서는 보존보다는 이용과 서비스를 위한 공간이 강조되는 반면 기록관에서는 보존기능을 위한 공간이 필수적이며, 박물관은 연구와 전시 및 교육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관마다 강조되는 공간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 업무를 바탕으로 라키비움의 공간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시설유지 및 관리공간, 수집 및 보존공간, 이용 및 활용공간, 공용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윤선영, 2016).

3. 라키비움 사례 분석 및 현황 조사

3.1 국내외 사례조사

본 장에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 운영 중인 라키비움을 파악하고, 각 기관의 운영사례를 살펴 보았다. 국내 사례조사 기관 선정은 최근 20년간 보도된 도서관·기록관·박물관 협력 또는 라키비움 운영 홍보 기사와 방문객들이 게시한 SNS 방문 후기 등을 수집하여 라키비움을 표방하고 있는 기관을 분석하였다. 라키비움이라는 용어를 기관 명칭에 포함하고 있거나, 명칭에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라키비움의 기능을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국내 라키비움의 형태도 기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모두 갖추어져 있거나, 이 중 일부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라키비움 관련 협의회나 단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라키비움에 관한 별도 법이나 관련 제도 역시 존재하지 않아 조사대상인 라키비움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수립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라키비움을 표방하고 있는 국내기관 중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사서·기록연구사·학예연구사 중 1명 이상 전문직렬 채용, 라키비움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2건 이상, 기관 SNS를 통한 라키비움 홍보 2건 이상인 기관을 선정하였다. 운영 기간, 전문인력 유무, 홍보 건수 외에 예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총 10개의 라키비움을 선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국외의 경우 라키비움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논문 및 연구 보고서 등에서 소개한 주요국의 사례를 포함하였고, 이 외에는 구글 등의 검색엔진을 통해 주요국의 대표적인 라키비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 카네기자연사박물관(CMNH), 프랑스 퐁피두센터, 독일 카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ZKM), 일본 센다이 미디어테크 총 5개를 선정하여 홈페이지 내용을 조사하였다.

종합적으로 국내외 라키비움의 벤치마킹 요소를 4가지로 구분하여 전문분야 특화형 라키비움 3개와 온라인 서비스가 뛰어난 라키비움 3개 그리고 특색있는 공간을 선보이는 라키비움 5개, 인력 및 통합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라키비움 3개로 나누었다. 총 15개의 기관별 홈페이지를 분석하고 직접 방문 및 관찰하여 서술하였다.

3.1.1 전문분야 특화형 라키비움

1)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¹⁾

경상국립대학교는 국가DB 구축사업과 교육

1) <http://nmh.gnu.ac.kr>

〈표 1〉 국내 라키비움 기관 선정

기관명	개관년도 (운영기간)	예산규모 (천원)	고용인원	운영방식	홍보	비고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	2018년 2월 (4년 4개월)	약 73,000	2명	직영	보도자료 4건 기관 SNS 2건	내부 이용자 대상
국립국악원 공간이음	2020년 8월 (1년 10개월)	약 40,000	13명	직영	보도자료 15건 기관 SNS 6건	
국립무형유산원 책마루	2018년 2월 (4년 4개월)	-	4명	민간위탁	보도자료 7건 기관 SNS 3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2015년 11월 (6년 7개월)	약 3,300,000	22명	직영	보도자료 5건 기관 SNS 2건	
국도정보교육원 LX라키비움	2020년 9월 (1년 9개월)	-	4명	직영	보도자료 2건 기관 SNS 2건	내부 이용자 대상
김근태기념도서관	2021년 12월 (6개월)	약 776,688	9명	민간위탁	보도자료 9건 기관 SNS 4건 서포터즈 1건	
남원다움관	2019년 10월 (2년 8개월)	약 120,000	2명	직영	보도자료 10건 기관 SNS 4건	
울산항만공사 라키비움	2019년 12월 (2년 6개월)	약 85,000	3명	직영	보도자료 3건 기관 SNS 2건	
증평기록관	2020년 8월 (1년 10개월)	약 870,000	2명	직영	보도자료 2건 기관 SNS 2건	
한국원자력연구원 라키비움	2014년 11월 (7년 7개월)	약 880,000	6명	직영	보도자료 3건 기관 SNS 2건	내부 이용자 대상

부 역사자료정보화사업 예산을 유치 받아 2018년 12월 기존 한적자료실에서 고문헌도서관으로 재개관하였다.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분관에 위치한 고문헌도서관은 학예연구사 팀장 1명과 사서 팀원 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 대학 최초의 고문헌 전문도서관이다. 수집 대상은 고서 및 고문서, 족보, 향토사 자료, 금석문 및 탁본 자료, 목판 및 활자, 고서 인쇄 도구, 고서화, 한적 도서, 경남지역 역사 관련 각종 기록물이다. 경남지역 민간 소장 고문헌, 특히 특성화 분야인 남명학 및 지리산학 등 지역 역사학 문헌을 수집·보존하여 대학의 연구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문헌도서관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기록관의 보존기능과 박물관의 전시

및 사회교육 기능을 결합한 라키비움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고문헌도서관에서는 지난 35년간 경남지역 고문헌 8만 5천여 점 이상을 수집, 보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지역 문중 및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아 영구기탁 받은 자료들로, 대학 학문연구와 문중 역사 기록, 한국학 연구를 위한 고문헌 기증자, 교직원 및 학생, 기타 연구 이용자들의 방문이 주를 이룬다.

또한 수집된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도서관 홈페이지 및 남명학 고문헌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화된 고문헌에 대한 원문 검색과 열람을 가능하게 하였다. 유학자 문집, 기록류, 고서 해제, 고문서, 책판 등을 DB로 구축하였으며, 한

국정보화진흥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포털과 연계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2) 한국원자력연구원 라키비움²⁾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전문도서관 최초로 2014년 11월에 라키비움으로 재개관되었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 전문정보센터이며 관내 다양한 자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공간 활용은 물론 원자력 관련 연구자료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기술정보팀에서 라키비움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원자력 기술 기록화 사업 주관 및 기록관리체계 구축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1명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라키비움은 연구기록물 550만 건을 보관할 수 있는 기록관과 국내 원자력 연구 연보, 연구 논문집, 회의록, 보고서, 발표자료 등을 전시한 박물관, 최신 국내외 학술지와 교양 도서 등을 대여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단행본, 참고도서, KAERI 보고서, 학술지, 정기간행물, 신문, 해외 기술보고서, KAERI 연구기록물 등 약 76만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통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서 기술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를 디지털 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DB구축 및 통합관리 기능을 가진 보고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역사관은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초장기에 원자력 연구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원자력법안 자료를 비롯한 원자력 관련 역사 사료, 연대기별 발전사, 인문기록사 등을 정리하여 한국 원자력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를 제공하고 있다. 원자력 체험관은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원자력의 원리와 연구성과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오정훈, 이응봉, 2014).

3) 미국 카네기자연사박물관(CMNH)³⁾

카네기자연사박물관은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가 기증한 것으로 1895년에 설립되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Pittsburgh)에 위치해 있다. 카네기자연사박물관은 지구상의 삶의 역사 특히 과학 분야를 문서화 한 표본과 유물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 약 2,100개의 박물관 표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쥘라기 공룡 컬렉션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다고 평가 받는다.

카네기자연사박물관은 '카네기 복합박물관'에 속해 있으며 카네기미술관, 앤디 워홀 미술관, 카네기 과학센터, 조각·건축 홀 등을 포함한다. 공공 전시회, 프로그램 및 교육 파트너십 등을 통해 연간 약 30만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도서관 과학 분야 장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양서류 및 파충류·인류학·조류·식물학·무척추 동물학 및 고생물학·포유류·광물·연체 동물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도서관에는 기관 아카이브가 포함되어 있는데, 카네기자연사박물관의 직원과 유관 기관의 연구 활동

2) <https://www.kaeri.re.kr>

3) <https://carnegiemnh.org>

을 지원하고 가치 있는 기록을 식별, 조직, 보존, 제공하고 있다. 개관 이후의 컬렉션과 연구 개발에 대한 기록 특히, 기관 내외부 서신, 영화, 사진 기록을 포함해 필기 노트, 전시 기록, 기관 논문 등을 수집하고 있다. 아카이브 컬렉션들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제외하고 대부분 도서관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3.1.2 온라인 서비스

1) 국립국악원 공간이음⁴⁾

2020년 8월에 증축된 공간이음은 국립국악원 국악자료실과 국악박물관, 국악아카이브 그리고 북한음악자료실의 소장자료 약 55만 점을 한곳에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통합을 이룬 공간이다. 국립국악원은 공간이음을 통해 라키비움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직제 개편을 통해 국악자료실, 국악박물관, 국악아카이브의 국악연구실 내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국립국악원 라키비움에는 사서 3명과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9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악자료실의 주요 서비스는 자료실 소장 컬렉션을 구성하여 소개하거나, 발간물 목록을 정리하여 출판하는 것이다. 국악박물관은 박물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이 중심 역할이며, 행사를 개최하거나 박물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국악아카이브는 국내외 국악자료, 특히 서울 본원 및 지방국악원(남원·진도·부산)의 업무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역사성·희소성·활용성·확

장성이 높은 외부 소장자료를 수집·보존·활용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음반 제작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업무기능 향상을 위한 분류체계 설계, 컬렉션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국립무형유산원 책마루⁵⁾

국립무형유산원은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이며, 문화복합공간 라키비움 책마루는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건물 3층에 2018년 1월 개관하였다. 책마루는 도서관 기능이 강하며, 서가와 열람공간에 사진, 구술 자서전 같은 다양한 기록화 활용 사례를 보여주는 기록물 전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누리마루 2층의 기획전시 공간이 박물관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누리마루 전체를 라키비움으로 볼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라키비움의 직원은 기록연구사 1명, 사서 2명, 기록연구사이자 사서 1명 등 총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 운영을 통해 책마루를 운영하여 담당자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과 공연을 보러온 가족 단위 이용객이 주로 이용하며,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국립무형유산원의 공연, 전시, 교육 자료, 학술조사 연구자료,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자료(기록 영상, 사진, 구술 채록, 영화), 다양한 영상 콘텐츠(다큐멘터리, 다국어 영상물) 등 국립무형유산원이 생산 및 수집한 자료

4) <https://www.gugak.go.kr>

5) <https://library.nihc.go.kr>

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록영상, 도서, 사진, 구술 채록, 기록영화 및 학술조사연구 자료를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자료공유시스템에서 파일을 공유받을 수 있다.

또한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소장자료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통합사이트 'K-PAAN'을 통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국립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장한 43만여 건의 연극, 무용, 음악, 국악, 전통연희, 무형유산, 근현대 공연, 아시아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증평기록관⁶⁾

증평군청 별관 1층에 위치한 증평기록관은 증평의 역사를 수집하고 증평 주민의 기억을 기록물의 형태로 재현하기 위한 공간이다. 주민 모두를 위한 문화공유 공간으로 조성된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 라키비움이며, 공공기록물과 시민기록물을 균형있게 보존, 관리, 활용하고 있다. 다른 기관에 비하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과 사서 자격을 모두 갖춘 기록연구사 2명이 운영하여 전문적인 기록관 중심의 라키비움 운영이 가능하다.

증평기록관은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전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협업하여 개관 기념전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고,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통하여 증평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마을 사진

남기기, 마을 영화 만들기, 사라진 옛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 같은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의 기록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여 기록집과 콘텐츠로 재생산하여 소장하고 있다. 증평군 주민이 소장하고 있는 아날로그 기록(비디오테이프, 인화된 사진, 필름, 카세트테이프 등)을 무료로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3.1.3 특색있는 공간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⁷⁾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sia Culture Center, 이하 ACC)은 2015년 11월에 개관한 아시아의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 기관이다. 현존하는 국내 최대 문화조직으로 수집된 아시아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제공한다. ACC 라이브러리파크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ACC 내 연구조사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도서관을 담당하는 사서가 2명, 박물관·기획·전시·아카이브를 담당하는 직원은 20명이다.

라이브러리파크는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의 기능을 통합한 라키비움의 활용에 집중한 공간으로 일반도서열람실, 기획전, 주제 전문관, 특별열람실을 이용자 동선에 맞춰 구성하고 있다. 아시아 50여 개국의 다양한 문화자원이 이용자와 만나는 장소로써,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파크는 주제 전문관과 기획전으로 구성되어 방대한 디지털 자

6) <https://larchiveum.net>

7) <https://www.acc.go.kr>

료와 함께 최적화된 열람공간과 체험, 커뮤니티,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ACC 아카이브를 통해 전시·교육·공연 등 아시아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소장 컬렉션 디지털 자료 4만여 건과 실물자료 2만여 건을 Dublin Core1.1XML로 정리하여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CC에서 추진한 연구 및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성과물인 전문주제 컬렉션과 기증컬렉션, 기관정책 및 운영자료, 아시아 기획 콘텐츠를 문서, 이미지, 음원, 도서,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홈페이지 통합검색에서 확인하여 사전 신청 후 주제 전문관과 기획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2) 남원다움관⁸⁾

남원다움관은 근현대기록관으로써 중요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남원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공간으로 2019년 10월 개관하였다. 홈페이지에서는 남원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의 기억을 추억하고 기록으로 보존해가는 공간으로 라키비움의 성격을 지닌 복합 문화공간으로 소개하고 있다. 남원다움관은 남원시 행정지원과에 소속된 기록연구사 1명이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광 업무를 겸임하며 운영하고 있다.

가상 체험공간이나 외부 야외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마련하여 주말 가족 단위 이용률이 높으며, 남원의 주요 관광지와 근접해 있어 관광객들의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센다이 미디어테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남원다움관은 인기도서와 더불어 남원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책들을 모두 소장하는 전문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있어 남원에 대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실에는 남원에서 노포를 운영 중인 지역주민 대상 구술 영상을 전시하고 있으며, 노포에서 소품, 가게부, 메뉴판, 만화책, 한복 등을 기증받아 상시 박물관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남원기록화 조사집을 6호까지 발간하였다. 남원다움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와 발간한 자료를 살펴보면 남원시 유관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전주영상위원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프랑스 퐁피두센터⁹⁾

1977년 2월 2일 미디어테크의 모습을 최초로 보여준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는 일반적인 공공도서관과 다른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미디어테크란 현대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시설로 기존의 도서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곽승진, 노영희, 신재민, 2017). 퐁피두센터는 음악, 영화, 연극, 전시회와 토론회가 열리는 예술정보에 대한 자료센터로서 도서관, 미술관, 미디어갤러리, 극장, 강당 등이 있는 복합적인 문화시설이다. 퐁피두센터는 기억과 기록보관 부서를 통해 기관에서 생산된 문서를 수집, 분류, 보존하여 공개 아카이브 형태로 관리 및 제공하고 있다.

퐁피두센터는 현대 미술에서 주요한 입지를

8) https://www.namwon.go.kr/tour/index.do?menuCd=DOM_000001001013001000

9) <https://www.centrepompidou.fr>

지닌 공간으로 디자인, 건축, 사진, 뉴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7만 여 점이 넘는 소장 작품을 통해 다양한 분야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영화, 공연, 음악,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각종 국제회의 및 심포지엄, 어린이 프로그램, 강연회, 예술교육과정 등을 통해 교육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4) 독일 카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 (ZKM)¹⁰⁾

예술과 미디어 센터(Zentrum für Kunst und Medientechnologie, 이하 ZKM)는 독일 남서부 카를스루에 지역에 있는 세계적인 복합예술 문화기관이다. 1997년에 개관하여 미디어기술 및 예술의 공동 연구 및 전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세계 최고의 미디어 예술센터이자 미디어 테크라고 볼 수 있다.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 미술관인 ZKM은 세계 5대 박물관 중 하나로,蓬피두센터의 공공성과 개방성과는 달리 전문적인 예술과 교육기관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곽승진, 노영희, 신재민, 2017).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아트(Interactive Art) 미술관으로 미디어아트 예술가, 디자이너, 과학자, 미디어 전문가 등이 ZKM에서 토론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ZKM은 생산과 조사 연구, 전시, 행사, 상호 교류 등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이며 전시, 강연, 회의, 간행물 출판을 통해 현대 예술과 최신 미디어기술의 전시와 생산에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학제 간 프로젝트와 국제 협력

의 증진을 위해 현대 예술 전시관, 미디어 미술관, 비주얼 미디어 연구소, 음악과 음향학 연구소, 미디어·교육·경제학 연구소, 미디어 도서관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ZKM의 컬렉션은 20~21세기에 창작된 약 9,000점의 예술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자, 예술가, 이론가, 큐레이터, 수집가, 출판사 등의 20~21세기 미술 아카이브를 통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5) 일본 센다이 미디어테크¹¹⁾

센다이 미디어테크(Sendai Mediatheque, 이하 SMT)는 프랑스蓬피두센터의 영향을 받은 기관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논의를 거쳐 2001년 새로운 유형의 문화시설로 개관하였다. SMT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료 열람공간을 포함하여 예술과 영상문화 활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기존의 도서관의 개념에서 벗어난 모습을 제시하였다(이현정, 2021).

SMT는 건물 전체가 투명한 유리로 디자인 되었으며 도서관, 갤러리, 시청각 자료실, 영화 스튜디오,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은 20만 권의 개가 자료와 30만 권의 폐가 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향토도서관과 일반도서관으로 구분된다. 향토도서관에서는 지역의 역사(센다이 역사, 부족, 서류, 각 마을의 역사 등)에 관한 내용이 비치되어 있다. 5층과 6층 전시실은 미디어아트, 현대미술, 향토 미술, 전통 공연예술 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SMT의 기획전시는 연중 진행되며, 시민들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10) <https://zkm.de>
11) <https://www.smt.jp>

등을 기획하고 있다. 예술인을 초빙한 아트워크숍 ‘아티스트 리서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화재를 보존하고 디지털화하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장애인을 위한 시민들의 점자 번역, 음성해설 자막 제작 프로그램 ‘베리어프리 디자인사업’, 샌더이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3.1.4 인력 및 통합의 새로운 방향성

1) 국토정보교육원 LX라키비움¹²⁾

국토정보교육원은 공간정보와 지적제도 연구 및 지적측량 등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 교육훈련 기관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이 충청남도 공주로 이진함에 따라 2020년 9월에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을 포함하는 LX국토정보박물관을 설립하였다.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설립된 기록관 중심의 라키비움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운영지원부에 소속된 기록연구사 2명, 국토정보교육원 교육지원실 소속 학예연구사 1명과 사서 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LX라키비움의 서비스는 국토정보교육원 교육생 위주로 운영된다. 그 중 LX국토정보박물관은 상설전시실와 영상 콘텐츠를 전시 중인 기획전시실로 나뉜다. 기록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록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록관리학 대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LX한국국토정보공사를 비롯한 국가철도공단,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기록관리협회를 만들어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기록

물 보존·복원 전략, 기록관리 우수사례 같은 공공기록관리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장구민, 2019).

2) 김근태기념도서관¹³⁾

김근태기념도서관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각종 기록물 등을 보존·전시하는 기록관 및 박물관, 도서관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형 민주주의·인권 특화도서관이다. 서울시도봉구가 건립하고, 2021년 12월 개관하면서 김근태재단이 위탁 운영하게 되었다. 개관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으나 위·수탁 업무가 개시되고 1년 동안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라키비움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의 직원은 사서 5명, 기록연구사 2명, 학예연구사 1명, 행정직 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팀 내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실이 도서관의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한다.

민주주의·인권 특화도서관에 걸맞게 사회과학 장서에 비중을 두었으며, 김근태 어록을 도서 분류명으로 활용하여 기관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가 곳곳에 김봉준 작가가 김근태를 추모한 작품이나 신영복 작가의 손글씨 작품 등 수많은 작가의 설치미술, 조각, 회화 등을 배치하였다. 도봉구 지역 특성상 이용대상 연령층이 높아 큰글자도서가 많으며, 소외계층에 주목한 주제 컬렉션 전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은 김근태 기록물, 미술품 등 1만 5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인권과 관련한 구술 채록 등을 통해 기록물을

12) <https://www.lxcti.or.kr>

13) <https://www.unilib.dobong.kr>

상시 수집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 보고서, 기록과 기증 전시 등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으며, 모든 기록 및 박물관도 공공도서관처럼 기술되어 있어 홈페이지에서 목록을 확인 후 관내 열람이 가능하다.

3) 울산항만공사 라키비움¹⁴⁾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기존 도서관을 2019년 12월 신관 건물로 이전하면서 열린도서관, 행정박물관, 기록관 등 각 영역 고유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세 가지 기능을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으로 개관하였다.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에서 라키비움을 운영 중이며 열린도서관팀이 도서관과 기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팀 총괄 기록연구사 1명, 도서관 운영과 사전정보공개, 독서경영 업무를 맡은 임기제 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 사서 인력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전문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도서관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항만공사 특성상 해운, 항만, 바다 관련 자료가 전체 자료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기증받은 도서를 '북 오픈마켓(자원순환 도서 나눔)' 행사를 통해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 나눔과 기부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울산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도서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 이용자의 90% 이상이 내부직원이기 때문에 독서토론 직원학습동아리(CoP)를 가장 중점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열린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울산광역시, 울산항만공사, 울산상공회의소 등의 유관기관 발행자료와 단행본, 연속간행물, 시청각 자료(DVD)를 검색할 수 있으며, 박물관이나 기록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검색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캐나다 도서관·기록관(LAC)¹⁵⁾

캐나다의 LAC(Library and Archives Canada)는 캐나다국립도서관, 국립기록관이 조직적으로 통합된 대표적인 국가 기관으로 기록유산의 획득, 보존, 접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기관이다. LAC는 2004년에 National Archives of Canada와 National Library of Canada의 통합을 위한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를 통해 창설되었으며, 2005년 세계 최초로 라키비움의 형태를 띤 국립도서관 및 기록관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최영실, 2013).

정부 산하 도서관 기록관과 관련한 기관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LAC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록과 함께 민간 기록도 수집한다. 미술품의 경우, 예술성을 기준으로 미술관과 분담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미술품을 일정한 정보를 담은 '도큐먼트'로 규정하여 도서관, 기록관 관리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매체에 관계 없이 캐나다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보가 담긴 자료, 기록유산 모두가 캐나다 LAC의 수집 및 관리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LAC의 홈페이지에서는 디지털화된 이미지, 초상화 등 다양한 온라인 전시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조현양 외, 2015).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

14) <https://www.upa.or.kr>

15) <https://www.bac-lac.gc.ca>

(AMICUS)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MIKAN)를 통합하여 도서, 기록, 동영상, 사진, 예술작품, 전자자원 등을 포함하는 'AMICAN'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동우, 2018).

지금까지 소개한 국내외 라키비움 15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 중 중심이 되는 공간 구성, 사서·기록연구사·학예연구사·기타 전문인력 배치 상황, 대표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 라키비움 구축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벤치마킹 요소를 정리하였다.

3.2 실무자 인터뷰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라키비움 10개의 기록연구사 5명, 사서 3명, 학예사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22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전화 인터뷰(2명), 대면 인터뷰(3명) 및 이메일 인터뷰(5명)를 수행하였으며 전화 및 대면 인터뷰의 경우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23개의 인터뷰 질문지를 기반으로 반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화 인터뷰의 경우 참여자의 동의하

<표 2> 국내외 라키비움 종합분석

벤치마킹 요소	기관명	공간 구성	전문인력	대표 서비스	비고
전문분야 특화형 라키비움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	도서관 중심	사서 1명, 학예연구사 1명	고문헌전시실 및 해설 서비스	-
	한국원자력연구원 라키비움	도서관 중심	사서 4명, 기록연구사 1명, 행정직 1명	원자력 체험 및 전시	-
	카네기 자연사박물관	박물관 중심	-	공룡컬렉션 전시	-
온라인 서비스	국립국악원 공간이음	도서관 중심	사서 3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9명	국악자료 통합검색 시스템	-
	국립무형유산원 책마루	도서관 중심	사서 2명, 기록연구사 1명, 기록 및 사서 1명	무형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증평기록관	기록관 중심	기록 및 사서 2명	지역 기록활동가 양성	-
특색있는 공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박물관 중심	사서 2명, 학예연구사 20명	주제전문관 컬렉션 전시	복합기능을 구현한 공간과 동선 설계
	남원다움관	박물관 중심	기록연구사 1명	근현대 전시·체험관	전시·체험관
	풍피두센터	예술복합센터	-	미디어 갤러리	예술정보 자료센터
	예술과 미디어 센터	예술복합센터	-	현대예술 전시	멀티미디어 정보공간
인력 및 통합의 새로운 방향성	센다이 미디어테크	예술복합센터	-	recorder 3·11	개방형 네트워킹 복합문화향유공간
	국토정보교육원 LX라키비움	기록관 중심	사서 1명, 기록연구사 2명, 학예연구사 1명	국토정보 상설·기획 전시	기록관리협의회 구심점
	김근태기념도서관	도서관 중심	사서 5명, 기록연구사 2명, 학예연구사 1명, 행정직 1명	민주주의·인권 전시	전문인력 채용
	울산항만공사 라키비움	도서관 중심	기록연구사 1명, 행정직 2명	독서토론 직원학습동아리(CoP)	민간·전문 위원회
캐나다 도서관·기록관	도서관·기록관 중심	-	AMICAN	국가도서관과 기록관의 통합	

에 녹취하였다. 해당 실무자들은 학사 2명, 석사 4명, 박사 4명으로 대부분 라키비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공 지식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수집된 인터뷰 자료는 3개의 범

주와 19개의 코드 및 하위코드로 구성된 코딩 체계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실무자 인터뷰 대상자

번호	직급/직함	전공	자격	경력
응답자 A	학예연구사	문헌정보학 학사, 한문교육학 석사, 한문학 박사	사서, 학예사	22년
응답자 B	학예연구사	한국미술사학 석사	학예사	10년
응답자 C	사서	문헌정보학 학사	사서	1년
응답자 D	사서	문헌정보학 학사	사서	6개월
응답자 E	사서	영어영문학 박사	사서	5년
응답자 F	기록연구사	기록관리학 석사 및 박사 과정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1개월
응답자 G	기록연구사	역사문화 학사, 기록관리학 석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0년
응답자 H	기록연구사	기록관리학 박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3년 8개월
응답자 I	기록연구사	문헌정보학 학사, 기록관리학 석·박사	사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3년
응답자 J	기록연구사	문헌정보학 학사, 기록관리학 석사	사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7년

<표 4> 실무자 인터뷰 질문 영역

범주	질문 예시
라키비움의 이해	라키비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귀하가 일하고 계신 기관 내에 라키비움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키비움 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키비움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키비움의 운영	라키비움의 운영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일하고 계신 라키비움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키비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는 무엇이며, 만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일하고 계신 기관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키비움의 활성화 방안	국내, 해외 라키비움 운영 사례 중에 모범 사례나 도입하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국내에서 라키비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데 있어 방해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운영의 활성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키비움 실무자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라키비움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2.1 라키비움의 이해

1) 라키비움의 개념과 필요성

먼저 라키비움 실무자가 인식하고 있는 라키비움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라키비움을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합친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설명하였다. 응답자 I는 “실무적으로 라키비움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라키비움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실무자가 일하고 있는 기관 내에 라키비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는 국내 라키비움 사례의 대부분이 모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라 소속된 기관의 라키비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G와 H를 제외한 응답자들은 이용자에게 더 효율적인 이용환경 제공과 서비스의 질 개선 또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였으며, 응답자 H는 라키비움 경영자의 관점에서 기관의 설치 예산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라키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제시하였다.

2) 실무자의 전문성 및 라키비움의 대표성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은 라키비움 실무자들이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각 기능별로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능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특히 도서관·기록관·박물관 실무자가 맡은 고유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사서·기록물관리전문요원·학예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의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여기에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절반이 각 기능별 업무 전문성 외에도 타 부서와의 협력 능력과 이용자 서비스 능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응답자 E는 공간의 이해나 실무 경력, 연구 경력을 강조하였으며, 응답자 I는 사업 기획력과 이용자 서비스 마인드를 언급하였다. 라키비움이 여러 기능을 융·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만큼 실무자는 타 분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협업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라키비움’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에 대해 7명의 응답자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문화공간 같은 ‘공간 구성’이라고 하였고 이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라키비움의 일반적인 의미와 연계되는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일부 응답자는 영상매체 전시나 통합 아카이브 시스템, 다양한 볼거리, 체험시설 등을 언급하였다.

3.2.2 라키비움의 운영

1) 라키비움의 운영 목적

라키비움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라키비움의 운영 목적은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자에게 편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이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세 기관의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운영이 활성화되고 한 공간에서 더 많은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및 집약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서비스 제공을 라키비움 운영에서 가장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E는 “공동체의 기억과 역사를 저장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2) 라키비움의 기능

현재 실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라키비움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자 응답자 C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은 기능 수행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대부분 도서관·기록관·박물관 중 2가지 기능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반면 응답자 I는 라키비움에 대한 개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한정해서 생각해보면, 작은 규모라라도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갖춘 공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라키비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현재 근무 중인 라키비움에서 어떤 기능이 부족한지를 질문하였을 때 응답자들이 속한 모기관의 성격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답변이 제시되었다. 특히 기록 전시와 보존기능, 박물관 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간이 협소하여 외형적으로 라키비움의 느낌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거나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협력 체계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응답자 E는 라키비움의 개념이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라키비움은 초기 모델로 역사성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3) 라키비움 운영 현황

인터뷰 대상자가 근무하는 10개 기관 모두 라키비움을 표방하고 있지만, 모기관의 성격, 공간, 근무하고 있는 라키비움 내 전문인력 유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서 많

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대부분의 라키비움이 특정 주제에 대한 기획전이나 상설전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전시가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통합적인 운영을 가시적으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 외 답변은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지역기록관·지역박물관과 유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라키비움을 구축한 지 오래되지 않아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하면서 라키비움을 일시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적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 라키비움 기관 내 인식 수준 및 이용자 만족도

인터뷰 대상자들이 근무하는 라키비움은 대부분 모기관에 속해 있으므로 라키비움이 속한 모기관의 직원들이 라키비움의 이용자가 될 수 있으며 라키비움에 대한 그들의 인식 정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라키비움의 공간과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있어 기관 내부 경영진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터뷰 결과 모기관 내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기관 내부직원들이 라키비움에 대한 용어를 낯설어 하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 쾌적한 공간이라는 가벼운 인식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다.

라키비움의 주 사용자들의 만족 요소와 만족 수준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운영 중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달라 만족하는 서비스도 달랐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라키비움 실무자 8명은 서비스와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응답자G는 이용자 만

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라키비움이 있는 장소가 외지고 협소하여 접근성이 낮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라키비움 운영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지 않고 소소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5) 라키비움 내 부서 간 협력

라키비움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을 수행하는 각 부서간 협력은 필수적이다. 3가지 업무를 모두 하나의 부서에서 담당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영사례 대부분이 하나의 부서 또는 팀으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라키비움에서 기능별 전문직렬 인력이 부족하여 한 부서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한 부서에서 라키비움이 운영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자료를 관리하거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협력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하였다.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응답자 B는 서로 다른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개별로 진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만 소통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응답자 E는 부서 간 소통을 위해 학술연구 관련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6) 라키비움의 문제와 해결과제

현재 라키비움을 운영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본 연구에 참여한 라키비움 실무자들은 전문인력 확보를 언급하였다. 이는 예산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라키비

움이 기관 내에서 핵심 업무가 아닌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는 기관 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설득의 과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간을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라키비움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라키비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고유 업무가 뚜렷하다 보니 각 분야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응답자 J는 라키비움 신규 구축 당시에는 기관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많았지만,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지원 정도의 편차가 크다고 답하였다. 응답자들은 지속적으로 라키비움의 필요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상위 관리자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7) 라키비움으로 인한 변화

기존 도서관, 기록관에서 라키비움으로 재개관한 경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응답자 8명은 인지도 개선과 이용률 증가를 말하였다. 특히 응답자 J는 라키비움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인지도가 상당히 개선되면서 예산이나 인프라 지원이 예전보다는 수월해졌다고 답했다. 응답자 H와 I는 공간 개선으로 이용자 대상이 내부직원에서 지역주민으로 확대되었고, 생소했던 기록관리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고 말하였다. 여러 형태의 자료를 하나의 공간에 배치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연구와 고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8) 라키비움의 강점과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 인터뷰 대상자들은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강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모기관의 성격, 공간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고, 그에 따라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강점이 다양하였다. 사례조사 대상 기관 중 주로 도서관 기능이 중심이 되는 라키비움이 많았는데,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별 조화를 중시한 것이 강점이라고 언급하거나, 라키비움 내 유기적인 협력, 공간 배치나 시설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국내의 라키비움 운영사례 중에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벤치마킹하고 싶은 모범 사례나 서비스가 있는지 질문하자 본 연구에 참여한 라키비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라키비움을 말하였다. 전산 시스템 통합을 통해 전자도서관, 온라인박물관, 기록물 검색을 하나로 서비스하는 포털 형식의 개방형 라키비움을 언급하였다. 응답자 E는 물리적 공간을 온라인으로 확대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향유하는 ‘유로피어나’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 미국의 카네기자연사박물관과 일본의 센다이미디어테크 등 해외사례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3.2.3 라키비움 활성화 방안

1) 라키비움 운영의 방해요인과 활성화요인
라키비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데 있어 방해요인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전통적인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각 기관에 대한 이용자 관심이 감소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운영 활성화 요인으로 라키비움의 업무는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서,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의 이해와 협력이 운영의 핵심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I의 경우 공간조성이 라

키비움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하며 이용자 중심의 공간 구축을 우선 고려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의 균형을 중시하는 답변이 많았는데, 라키비움의 운영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기능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8명의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능을 위한 더 많은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다만 응답자들이 말하는 균형이란 예산이 똑같이 나누어지고 인력의 수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각 기능에 맞는 적절한 예산과 인력 배치를 뜻하였다. 특히 응답자 G와 H는 박물관의 경우 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록관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2) 라키비움 실무자에게 필요한 교육

라키비움 종사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이 있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라키비움 실무자 6명은 기본적으로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별 전문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세 가지 기능을 융·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획력과 공간설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도 기능별 업무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타 분야의 전문가 교육,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위한 저작권 교육, 이용자 응대를 위한 기본 소양을 쌓기 위한 서비스 교육, 정보 시스템 이용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3) 라키비움 발전 방향

인터뷰 대상 기관은 국내 라키비움의 초기 단계 모델로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관들이

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자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응답자 대부분은 라키비움이 기관의 특색에 맞는 독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하며,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이 협업하여 진정한 라키비움의 의미가 실현되도록 더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A는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과 결합한 최신 정보서비스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응답자 J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조직, 인프라, 시스템 등의 통합 업무를 개발하고 확장하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3.3 이용자 인터뷰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라키비움을 이용하고 최근 3년 이내 SNS(블로그, 인스타그램)에 방문 후기를 남긴 이용자 중 해당 기관이 라키비움을 표방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방문 후기를 통해 해당 기관을 라키비움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용자 5명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개의 인터뷰 질문지를 기반으로,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반구조화 방식으로 평균 1시간정도 대면 인터뷰(1명) 및 전화 인터뷰(1명)를 수행하였고 이메일 인터

뷰(3명)도 실시하였다. 대면 및 전화 인터뷰의 경우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하였다. 실무자와 이용자 대상 인터뷰 질문지는 라키비움 운영에 대한 부분을 라키비움 이용에 대한 부분으로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수집된 인터뷰 자료는 3개의 범주와 14개의 코드 및 하위코드로 이루어지는 코드 체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국립국악원 공간이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김근태기념도서관, 남원다움관, 증평기록관 각 기관당 1명이 선정되었으며 인터뷰 대상자의 자세한 정보는 <표 5>와 같다.

3.3.1 라키비움의 이해

1) 라키비움의 대표성과 처음 알게 된 계기
 이용자에게 ‘라키비움’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용자의 응답 역시 실무자들의 답변과 유사하였다. ‘복합 문화공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전시공간, 문화공간 같은 ‘공간 구성’이라고 답하였다.

라키비움을 언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지 질문하자 예상보다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이용자 4명은 매우 우연한 계기

<표 5> 이용자 인터뷰 대상자

번호	이용기관	성별	연령대	학력	거주지	최근 방문일
이용자 A	국립국악원 공간이음	여	30대	대학 졸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2년 3월
이용자 B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여	30대	대학 졸업	부산광역시	2020년 5월
이용자 C	김근태기념도서관	남	40대	대학원 졸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2년 3월
이용자 D	남원다움관	남	50대	대학원 졸업	경상북도 문경시	2021년 4월
이용자 E	증평기록관	여	50대	대학 졸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0년 10월

〈표 6〉 이용자 인터뷰 질문 영역

범주	질문 예시
라키비움의 이해	라키비움을 언제 처음으로 알았습니까?
	라키비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키비움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키비움의 이용	라키비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라키비움 방문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라키비움을 방문하였을 때, 방문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방문한 라키비움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키비움의 활성화 방안	귀하는 라키비움의 방문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키비움에서 제공받으려 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라키비움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 라키비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를 통해 라키비움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이용자 A와 E는 기관이 운영하는 세미나와 라키비움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라키비움이 거주지 인근이라 방문하였거나 국내 여행을 하던 중 지역의 관광지로 자리 잡은 랜드마크로써 라키비움을 방문한 경우도 있었다.

2) 라키비움 이해 수준

본 연구에 참여한 라키비움 이용자들은 라키비움을 아카이브·자료실·박물관의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식정보공간의 통합적 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라키비움의 기본적인 의미를 비교적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응답자 주변의 지역주민들에게는 라키비움이 낯선 용어일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3.3.2 라키비움 이용

1) 라키비움 이용 빈도와 동행자

인터뷰에 참여한 이용자 대부분이 라키비움 이용빈도가 낮았으며 라키비움에 방문할 때 혼

자 가기보다는 가족, 투어 이용객, 지역주민, 프로그램 참여자 등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이용자는 건물 내부에 충분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도서관·박물관·기록관 무료 전시가 다채롭게 이루어져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다고 말하였다.

2) 라키비움 방문 목적

라키비움이 여러 기능을 담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방문목적 또한 매우 다양하였다. 이용자들은 가벼운 문화적 충족을 목적으로 주로 방문하였으며, 연구 및 업무 목적으로 특수한 자료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 이용자 B는 라키비움이 속한 모기관에 방문했다가 라키비움까지 같이 탐방했다고 답하였으며, 이용자 D는 국내 여행 중에 관광책자에서 소개하는 라키비움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3) 라키비움 기능과 만족도

이용자들은 가장 최근에 방문한 기관이 라키비움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질문하자 모두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라키비움의 기능이나 시설,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대답은 없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라키비움 이용자 4명은 특수한 자료, 콘텐츠의 다양성, 상시 전시가 있는 휴식공간,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역할 수행만으로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3.3.3 라키비움 활성화 방안

1) 라키비움 방문 장애요인 및 긍정요인

라키비움을 방문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이용자 4명은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많은 문화기관들이 지역의 요충지에 위치하기보다는 외곽 지역에 위치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데 라키비움도 그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용자 A와 D는 라키비움의 존재 자체를 해당 지역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라키비움 방문을 촉진하는 긍정요인으로도 접근성이 언급되었다. 이밖에도 관광안내 책자를 통한 기관 홍보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전시와 카페, 공연장, 휴식공간, 일상적이고 쾌적한 복합문화공간이 재방문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용자 A는 주말 가족 단위 방문을 위해 주차장이 넓은 것이 긍정요인이라고 말하였다.

2) 라키비움의 기능과 서비스

이용자가 방문했던 라키비움의 도서관·박물관·기록관 기능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특히 어떤 기능이 부족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라키비움의 성격과 시설 환경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이용

자 A와 C는 기록관 기능 강화, 이용자 B는 도서관 기능 강화, 이용자 D는 박물관 기능 강화를 말하였다. 특히 이용자 E는 실무자 인터뷰 결과와 유사하게 라키비움 기능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였다.

이용자가 라키비움에서 제공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은 기관의 특색을 보여주는 전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기록 관련 프로그램,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근현대사 강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 A는 기관이 라키비움임을 알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이 적힌 작은 책자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3) 라키비움 재이용 및 추천

라키비움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인터뷰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접근성만 좋다면 해당 지역의 역사, 라키비움의 테마 주제, 예술 및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휴식공간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재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키비움을 주변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이용자 4명은 추천하겠다고 답하였다. 이용자 A는 특색있고 새로운 전시 등 이용자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용자는 라키비움이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4) 라키비움 필요성과 발전 방향

이용자에게 본인 거주지 인근에 새로 라키비움이 설립될 필요성이 있는지 질문하자, 모든

이용자가 라키비움을 원했으며 질 높은 문화생활을 무료로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용자 C는 자치구 내에 위탁하는 도서관들이 라키비움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용자 D는 거주지역의 관광 테마를 담은 라키비움의 유용성을 언급하였다.

라키비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이용자들은 현재 모습을 유지하되 라키비움의 정체성을 찾는 쪽으로 발전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처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기록 콘텐츠,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희망하였다. 특히 이용자 A와 C는 지역주민들에게 생소한 대상인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을 생산·발굴하고 전시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4. 라키비움 운영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사례 조사 결과와 라키비움 담당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터뷰 분석을 바탕으로 라키비움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활성화 방안은 기관 내·외부 인식 개선, 공간 개선과 서비스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라키비움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통합적 운영 강화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4.1 인식개선

4.1.1 기관 내부 인식 개선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내 라키비움의 대부분

은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을 모기관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며 효율적인 라키비움 운영을 위해서는 라키비움이 기관 내 주요 조직으로 인식되고 이를 활성화하려는 구성원들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내부직원들이 라키비움에 대한 용어를 낯설어 하며 기관 내부에서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기존의 도서관·박물관·기록관이 라키비움으로 재개관한 당시에는 기관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을 받았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기관장이 자주 변경되면서 기관장에 따라 지원 정도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라키비움 운영을 위해서는 라키비움에 대한 기관 내부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기관의 직원들이 라키비움이라는 용어를 낯설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부 직원들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뷰 결과 실무자들은 라키비움이 기관 내에서 핵심 업무가 아닌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기관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라키비움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국내 사례가 공간이 협소하고 서비스를 위한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추후 라키비움 발전에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상위 관리자는 물론 모든 구성원들이 라키비움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라키비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이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라키비움의 가치를 기관 내

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1.2 이용자 인식 개선

라키비움의 주요 이용 대상은 라키비움이 위치한 지역주민이지만, 인지도가 낮아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소수의 기관 구성원이 방문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문제를 이용자 인터뷰 3.3.1과 3.3.3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라키비움을 여러 번 방문한 이용자라도 이를 공공도서관이나 지역 기록관, 지역 박물관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라키비움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라키비움이라는 용어와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공모전이나 지역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보도자료, SNS 활동, 지역 서포터즈 활성화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통이 불편하고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거나, 라키비움 시설이 협소한 경우가 많았으며 접근성이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이용자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다.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라키비움의 경우 위치나 공간을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근성과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거나 지역 거버넌스 형성, 라키비움 협의체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 공동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라키비움의 경우 타 기관들

의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향상 및 공간구성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라키비움 이용자들은 거주지 인근에 질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라키비움이 구축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주로 문화적 향유와 만족을 목적으로 라키비움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용 목적에 적합한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라키비움의 테마 주제를 설정하고, 예술과 문화가 있는 휴식공간으로 라키비움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새롭고 다채로운 공간으로 라키비움 공간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색있는 공간과 시그니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이용률을 높이고 타 지역 주민들의 방문도 이끌어낼 수 있다.

실무자 인터뷰에서 언급된 프랑스의 퐁피두 센터와 일본의 센다이 미디어테크 등 해외 사례 대부분이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이성 있는 건물로 해당 지역의 핵심 문화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관광 테마를 담은 라키비움을 언급하며 라키비움이 위치한 지역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강원도 봉평 지역을 대표하는 라키비움을 구축하고자 할 때 메밀꽃과 소설을 테마로 지역의 역사성을 담은 도서, 기록 및 박물관의 다채로운 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이용자 D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문경시 라키비움의 경우에는 에너지, 광산, 장원 급제 과거길 문화 같은 지역성을 대표하는 테마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자 타 지역민도 방문하고 싶은 랜드마크로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예산 및 인력 확보

4.2.1 예산 확보

국내에 라키비움 개념이 소개된 것은 2012년이며 이후 점진적으로 라키비움 구축이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기관 실무는 주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라키비움은 도서관·박물관·기록관의 세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마련하고, 여러 형태의 자료를 배치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간 배치나 시설, 전용 서가, 디지털화 장비 등을 라키비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 사례 대부분이 공간 협소의 문제로 인해 라키비움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기관 내 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 및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기능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듯이 라키비움으로서의 기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라키비움 중 일부가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 중 두 가지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기록물 전시 및 보존기능 그리고 박물관 전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공간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라키

비움이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라키비움이 특정 주제에 대한 상설전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시 콘텐츠의 질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예산 및 인적 자원 차이에서 뚜렷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라키비움의 전시 기능은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모든 보유자원을 가시적으로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이므로 예산이 부족한 기관은 높은 수준의 전시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충분한 인적자원을 확보한 사례 기관에서는 타 기관들에 비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도서·기록·박물이 통합된 독창적인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실무자 인터뷰 내용 중 라키비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능의 균형을 중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라키비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있는 예산 분배가 중요하다. 라키비움의 예산 분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더불어 라키비움의 예산은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을 대상으로 3등분 되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능에 맞는 적절한 예산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의 경우 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경향이 있으므로 수집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기록관은 도서관이나 박물관보다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기록 업무와 보존 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및 체험 공간구성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조사 대상 라키비움에서 기록관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경향이 있으므로 기록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실무자 절반 이상이 라키비움의 발전 방향으

로 온라인 라키비움을 언급하였으며 전산 시스템 통합을 통한 포탈 형식의 개방형 라키비움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실무자 의견을 바탕으로 라키비움의 물리적 공간을 온라인으로 확대해서 기관 내 도서·기록·박물관 검색을 하나로 서비스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수자료 수집, 콘텐츠 제작 및 전시가 있는 휴식공간 개선을 위한 예산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라키비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차장 개선과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설득이 필요하다.

4.2.2 전문인력 확보

현재 라키비움을 운영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라키비움 실무자들은 전문인력 확보를 언급하였다.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은 고유 업무가 뚜렷하다 보니 각 분야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일반 행정직이 전공 지식이나 자격없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실무자 인터뷰에서 언급된 대로 기능별 전문직렬 채용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라키비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라키비움들은 기본적인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력 부족의 문제는 서비스의 품질을 크게 저하시키며 조사 대상 라키비움 중에서 소규모 인원으로만 운영되는 기관도 존재하는데, 이처럼 적절한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라키비움의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기관 사정상 불가피하게 전문인력이 충원되기 어렵다면, 울산항만공사의 사례처럼 사서 인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학술연구 관련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 라키비움 중 가장 많은 전문인력을 채용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의 경우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라키비움 운영을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나 기록집을 출판하거나 해외의 작가들과의 협업을 진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었다. 라키비움 서비스의 품질은 인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1인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라키비움의 경우 그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각 영역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전문인력이란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고유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사서·기록물관리전문요원·학예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성을 말한다. 추가적으로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라키비움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전문인력 채용 이후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실무자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세 가지 기능을 융·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획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타 분야의 전문가 교육,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위한 저작권 교육, 이용자 서비스 교육, 정보시스템 교육, 타 부서와의 협력 능력과 이용자 서비스 능력을 위한 직원의 계속 교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4.3 통합적 운영 강화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실무자는 라키비움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기록관·박물관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무자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듯이 세 기관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강한 내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거나, 라키비움 전담조직과 같이 하나의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인력 및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키비움의 운영에 있어 세 기관별 주요 전문가인 사서·기록연구사·학예연구사의 이해와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이들의 전문성이 라키비움 운영의 핵심인 만큼 전문인력의 균형 있는 채용 및 배치를 통해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실무자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다. 조사대상 라키비움의 경우 기능별 전문인력의 고용현황이 대체로 열악하였으며, 라키비움과 관련성이 적은 부서의 하위 조직에 소속된 형태로 운영되어 세 기능의 연계나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직렬의 전문인력은 채용하지 않고 있거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전문인력들 간의 직급 및 직위의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었다.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고유 업무의 차이만큼 각 전문분야의 실질적인 업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전담조직 구성에 앞서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타 라키비움의 사례분석을 통한 인력 운영방안을 수

립하고 직무·부서별 소요인력 산출을 설정하여야 한다. 조직진단 전문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라키비움 조직의 강점·약점, 개선요소를 확인하고, 현 조직에 필요한 최적의 변화를 도출하여 구체적인 변화방안을 설정하여 현 라키비움의 기능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라키비움 실무자들은 상대적으로 기록관 기능이 취약하고, 이에 따른 공간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무자 인터뷰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기록연구사를 전문인력으로 고용하여 라키비움이 세 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키비움 업무는 세 기관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서·기록연구사·학예연구사와 같은 전문인력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라키비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유하면서도 독창적인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라키비움 사례를 통해 각 기관은 지향목적이 모두 상이하고, 추구하는 기관의 가치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조직의 가치를 반영하고 특수한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라키비움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사례조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국내 라키비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였다. 첫째, 라키비움의 내·외부 인식개선이다. 라키비움이 기관 내에서 핵심 업무가 아닌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활성화하는 기관 구성원들의 합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내 라키비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용자 대상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 및 인력 확보이다. 국내 라키비움 대부분이 공간 협소의 문제로 인해 라키비움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별 전문직렬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채용이 우선 과제를 알 수 있었다.

셋째, 각 라키비움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통합적 운영 강화를 제안하였다. 라키비움은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고유하면서도 독창적인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라키비움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활

발한 소통을 이루어 세 기관의 업무를 하나의 부서나 조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력과 서비스의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비교적 인지도가 높고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라키비움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기관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국내 모든 라키비움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이용자 인터뷰 중에서 해당 기관을 라키비움으로 인지한 5명의 이용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양한 이용자 인식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무자가 인식하는 라키비움의 현 상황과 실제로 라키비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의견을 모두 조사하였기에 양쪽 입장을 모두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재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라키비움에서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신규 구축 예정인 라키비움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구민 (2019). 기록관 중심의 라키비움 설립: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2), 250-256.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2.250>
- 곽승진, 노영희, 신재민 (2017).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공간구성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7-2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007>
- 김미연 (2016). 공공도서관 사서의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 김민경, 이성신 (2014).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공간 협력 방안.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7(1), 1-24.
- 김유승 (2012). 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관한 연구: 기억기관협력 정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93-115.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093>
- 오정훈, 이응봉 (2014). 전문도서관 라키비움 구축에 관한 연구: 원자력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2), 229-246.
- 윤선영 (2016). 국가산업단지의 라키비움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56, 131-142.
- 이미경 (2014). 라키비움 도입과 실현. *국회도서관*, 51(5), 14-23.
- 이시카와 데쓰야, 네모토 아키라, 요시미 순야 (2021).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연계·협력. 경기도: 한울.
- 이현정 (2021). 정부산하공공기관 라키비움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조현양, 김홍렬, 최재황, 박종도 (2015). 도서관에서의 라키비움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최영실 (2013). 라키비움 공간기획을 위한 리모델링 대상 기관의 현황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2), 143-167. <https://doi.org/10.3743/KOSIM.2013.30.2.143>
- 최영실, 이해영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계획.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57-47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4.457>
- 한동우 (2018).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의 라키비움 구축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한희정, 육혜인, 오유진, 김용 (2014). 문화유산기관의 협업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기록관·도서관·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2), 31-60.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2.031>
- Duff, W. M., Carter, J., Cherry, J. M., MacNeil, H., & Howarth, L. C. (2013). From coexistence to convergence: studying partnerships and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formation Research: An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18(3). <http://informationr.net/ir/18-3/paper585.html#.Yyo4M6TP1PY>
- Howard, K., Partridge, H., Hughes, H., & Oliver, G. (2016). Passion trumps pay: a study of the future skills requirements of information professionals in galleries,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australia. *Information Research*, 21(2). <http://informationr.net/ir/21-2/paper714.html#.Yyo4haTP1PY>
- Kennan, M. A. & Lymn, J. (2019). Where is the I(nformation) in GLAM? education, knowledge and skill requirements of professionals working in GLAM sector institutions. *Journal of the Australian Library & Information Association*, 68(3), 236-253. <https://doi.org/10.1080/24750158.2019.1613708>

- Kuzyk, R. (2008. July 30). LJ talks to Megan Winget, who studies preservation of online games. *Library Journal*. Available: <https://www.libraryjournal.com/story/lj-talks-to-megan-wingetwho-studiespreservation-of-online-games>
- Marcum, D. (2014). Archives, libraries, museums: coming back together?. *Information & Culture*, 49(1), 74-89. <https://doi.org/10.7560/IC49105>
- Rasmussen, C. H. & Hjørland, B. (2021).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LAM): conceptual issues with focus on their convergence. *ISKO Encyclopedia of Knowledge Organization*. Available: <https://www.isko.org/cyclo/lam>
- Rasmussen, C. H. (2019). Is digitalization the only driver of convergence? theorizing relations between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Journal of Documentation*, 75(6), 1258-1273. <https://doi.org/10.1108/JD-02-2019-002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Hyunyang, Kim, Hongryul, Choi, Jaehwang, & Park, Jongdo (2015). *Institutional Research for the Realization of Larchiveum in Libraries*. Seoul: National Library.
- Choi, Youngsil & Rieh, Haeyoung (2012). Functional planning of larchiveum that integrates the function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23(4), 457-477.
- Choi, Youngsil (2013). A study on analysis of remodeling target institution for larchiveum spatial plan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143-167.
- Han, Dongwoo (2018). *A study on Larchiveum Construction Plan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Archive*. The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Han, Hui-Jeong, Yuk, Hye-In, Oh, Yujin & Kim, Yong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services to collaborate between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2), 31-60.
- Ishikawa Tetsuya, Nemoto Akira, & Yoshimi Sunya (2021).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Linkage and Cooperation*. Gyeonggi-do: Hanul.
- Kang, Gumin (2019). Establishment of archives-centered larchiveum: the case of LX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19(2), 250-256.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2.250>
- Kim, Minkyung & Lee, Seongsin (2014). The collaborative workplace among archives, libraries,

- and museums. The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7(1), 1-24.
- Kim, Miyeon (2016). A Study on Perception of Larchiveum by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Focus on Icheon Metropolitan Cit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im, Youseung (2012). A study on perspec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focused on discussion about collaborative strategies of memory institutions.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93-115.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093>
- Kwak, SeungJin, Noh, Younghee, & Shin, Jae-Min (2017).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of library as a multicultural institu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7-2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007>
- Lee, Hyunjung (202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Agency: Focusing on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Graduated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 Lee, Mikyung (2014). Deployment and realization of larchiveum. National Assembly Library, 51(5), 14-23.
- Oh, JeongHoon & Lee, EungBong (2014).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larchiveum of specialized library: focused on atomic larchiveum.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5(2), 229-246.
- Yoon, Sunyoung (2016). A study on larchiveum use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56, 131-142.

